

시대의 이상을 가진 시대의 사역자를 긴밀히 따름으로써 시대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네 여정

성경: 왕상 18:21-40, 19:2-12, 왕하 2:1-14

- I. 엘리야는 그의 시대를 위한 이상을 가진 시대의 사역자였다(비교 말 4:5-6, 눅 1:13-17, 76-80, 마 17:1-13, 계 11:3-12). 때 시대마다 주님께는 성취하기 원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있으시다. 주님은 그분 자신이 회복하셔야 할 것들과 이루셔야 할 일들이 있으시다. 한 시대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특정한 회복과 일이 곧 그 시대의 사역이다. 엘리야의 사역은 그가 반대 증거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숭배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에 경배했을 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그들이 경배하는 우상들이 거짓 신들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다.
- A.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그의 위임과 메시지를 말해 준다. 그는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 이전의 신언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대표적인 신언자였다. 그는 이기는 이였다.
- B. 엘리야 때에 온 이스라엘은 바알에 경배했으며, 오직 엘리야만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들 중 한 시기, 즉 이스라엘의 황폐함과 어둠이 가장 심각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신언자였다.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우상숭배의 본을 따르고 있었다 — 왕상 18:19.
- C. 이스라엘이 바알에 경배한 것은 사실상 사탄에게 경배한 것이다. 열왕기하 1장 2절은 에그론 사람들의 신이 바알세불이었다고 말한다. 신약에서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주'를 의미하며 귀신들의 왕인 사탄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경멸하는 표현 방식인 바알세불로 바꾸었는데, 바알세불은 '똥 더미의 주'를 의미한다 — 마 10:25, 12:24, 27, 막 3:22, 눅 11:15.
1. 똥 더미의 주로서 사탄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은 파리들을 이끌어서 똥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다. 그는 파리들의 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사탄을 따라 '똥을 먹고 사는' 파리들과 같다.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은 모두 사탄의 포로들이며, 사탄은 그들을 이리저리 이끌어서 죄들을 짓게 하고 그들을 '죄의 노예'가 되게 한다 — 요 8:34.
 2.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한다. 바울은 과거에 한때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배설물'(찌꺼기, 쓰레기, 오물, 개가 먹는 것, 똥)로 여겼다고 말했다 — 빌 3:5-8.
- D. 아합은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왕보다 더 많이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키시어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숭배 때문에 곤경에 처했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 — 왕상 16:33, 18:4, 17-18, 37.
1. 신약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 하십시오."(요일 5:21)라고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상은 참되시고 진실하시며 실재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요 20:28-29)를 대치하거나 그리스도의 대체물인 모든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요 1:1-2, 5:18, 10:33, 롬 9:5, 빌 2:6, 요일 5:20).

2. 여호와와 에스겔에게 “사람의 아들이여,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우상들을 두고”라고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우리 안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대치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다 — 겔 14:3.
 3. ‘적그리스도(antichrist)’라는 단어에서 ‘적(anti)’이라는 접두사는 헬라어에서 주로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것은 첫째로 ‘반대하는’을 의미하고, 둘째로 ‘대치하는’ 혹은 ‘대신하는’을 의미한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고, 다른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어떤 것, 즉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어떤 것을 가지는 것이다 — 요일 2:18-19.
 4.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원칙, 곧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시자 기름을 바르시는 분 둘 다이신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원칙 안에서 생활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주님께 구해야 한다.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적-기름바름(anti-anointing)’의 원칙, 곧 우리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적시시는 것을 ‘적대하는’ 원칙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 요일 2:20, 27.
 5. 사탄의 목표는 수많은 우상과 종교의 배후에 숨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이다(마 4:8-9). 우상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배후에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숨어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를 사탄이 빼앗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경배자들을 찾으셔야만 한다(요 4:23-24, 비교 요일 2:20, 27).
- E. 엘리야는 하나님의 증거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원칙을 대표한다.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왕과 백성과 바알의 신언자 사백오십 명 앞에 섰다. 교회가 황폐하고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미지근할 때, 하나님은 이기는 이들을 일으키시어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던’ 것과 같이) 반대 증거, 곧 자기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주의하는 이들이 되게 하신다 — 계 2:13-14, 12:11.

II.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이 열매를 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 A.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직역하면 그가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엘리야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 B.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환경이나 상황에서 기인한 자신의 느낌, 생각, 의도, 기분, 혹은 어떤 동기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 — 비교 시 27:4, 요 15:7.
- C.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온 백성과 바알의 신언자 사백오십 명에게 “여러분은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라고 말했다 — 왕상 18:21.

1. 엘리야가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와 불이 내리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먼지를 삼켜 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을 훔아 버렸다.” — 왕상 18:36-38.
 2.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여호와, 그분께서 하나님 이시다! 여호와, 그분께서 하나님 이시다!’ ” 그 후에 바알의 신언자 사백오십 명 모두가 처형당하였다 — 왕상 18:39-40.
 3. 이세벨이 이것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엘리야는 악함으로 인해 두려워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하였다. 엘리야는 사십 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렐에 이르렀고 그곳의 동굴로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 왕상 19:2, 9-10.
- D.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있을 때 갑자기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는데, 그분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약 시대 안으로 이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천둥소리로 말씀하시지 않고 부드럽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신다 — 왕상 19:11-12, 롬 8:6하, 고후 2:13, 요일 2:27.
- E. 이러한 일이 있는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칠천 명을 남겨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맞춤하지도 않은 이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왕상 19:18, 롬 11:2-5). 이 신실한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숨겨 두신 이들’(시 83:3하)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사 45:15)이시다.

III. 엘리사가 길갈에서 벰엘까지, 벰엘에서 여리고까지,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엘리야를 따른 것은, 신약 시대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시대의 이상에 따라 시대의 사역자를 내재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 중요한 네 장소를 통과해야 한다 — 왕하 2:1-14.

- A. 엘리야는 구약 경륜에 따른 구약 시대의 예표이고, 엘리사는 신약 경륜에 따른 신약 시대의 예표이다.
- B. 길갈을 통과함으로써 시대가 전환되었다.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고 그들의 육체를 처리한 곳이다. 길갈은 육체가 심판받는 곳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어 육체를 심판하게 하시는 곳이다 — 수 5:2-9, 갈 5:24, 빌 3:3-8.
1. 육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유한 모든 것이다(요 3:6). 육체는 세 부분으로 된 타락한 사람이 극도로 표현된 것이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 영은 삼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실재화되신 분이시다. 타락한 육체는 가장 강하고도 사악한, 하나님의 원수이고(롬 7:5-8:13), 하나님께서 참으로 철저히 미워하시는 것이다(창 6:3, 고전 2:14-16, 3:1, 3).
 2.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유한 모든 것, 곧 죄와 더러움과 부패뿐 아니라 타고난 선함과 친절과 재능과 열정과 지혜와 능력까지도 모두 싫어하신다.
 3. 육체를 거절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 육체를 거절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모든 이들은 영적인 노정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며 영적인 생활을 참되게 알지 못한다.
- C. 벰엘을 통과함으로써 시대가 전환되었다. 벰엘은 세상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취한 곳이다. 벰엘은 세상에 대한 승리를 가리킨다 — 창 12:8, 요일 2:15.

1. 창세기 12장 8절에 따르면, 벧엘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 즉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한 곳이다. 벧엘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곳이자 하나님께 완전히 드러져서 세상을 이기는 곳이다 — 창 13:3-4.
 2. 세상에 대한 승리는 휴거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믿는 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휴거되기를 참으로 갈망한다면, 반드시 세상을 버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완전한 헌신이라는 제단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D. 여리고를 통과함으로써 시대가 전환되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으로 들어갔을 때 반드시 패배시켜야 했던 첫 번째 성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상징한다 — 수 6장, 계 12:11.
1. 여호수아기 6장은 ‘저주받은 곳’을 의미하는 여리고를 이기는 것에 대해 말한다. 가나안 족속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언급된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상징한다.
 2.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요 14:30), 악한 영들은 오늘날의 세상을 가리키는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다. 악한 영들은 반역한 천사들로서,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사탄을 따랐고, 페르시아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처럼(단 10:20) 지금은 하늘들의 영역에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
 3.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한’(엡 6:11, 13) 이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는 몸의 어떤 개별적인 지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개인들로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4.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수행한 결과들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고후 4:13, 요 17:17, 6:63, 엡 6:17-18).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의 위치에 견고히 섬으로써 무너졌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세 번 유혹을 받고 계셨을 때, 주님은 세 번 “성경에 ...라고 기록되어 있다.”(마 4:4, 7, 10)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대응하셨다.
 5.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상황과 느낌을 무시하고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인 하늘들에 있는 위치에서 있어야 하며,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을 우리의 위치보다 더 낮은 그들의 위치로 끌어내려야 한다 — 고후 4:13, 엡 2:6, 골 3:1-2.
 6. 여리고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멘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 곧 으뜸의 위치를 드림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임을 상징한다. (일곱 번째로 성을 돌 때) 나팔을 불고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언약궤)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상징한다 — 수 6:1-20.
- E. 요단강을 통과함으로써 시대가 바뀌었다. 이 강은 신약의 침례가 시작된 곳으로서, 죽음을 상징한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부활 안에서 생활하고 사역하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 마 3:5-6, 롬 6:3-4, 갈 2:20.
1. 주님의 침례는 죽음을 상징하고, 주님께서 물에서 나오신 것은 부활을 상징한다. 주님은 부활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주님은 침례 받으심으로써, 삼 년 반 후에 실제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부활 안에서 생활하시고 사역을 수행하실 수 있었다 — 마 3:13-17.

2. 우리는 거듭날 때 이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었다. 사람-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불법자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 행 2:23-24, 요 11:25, 뱀전 1:3.
3.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침례의 실재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롬 6:4).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는 것은 우리가 받은 침례의 실재 안에서 섬기는 것이다(롬 7:6).
4.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기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자아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한 것이다 — 빌 3:10-12, 마 16:24, 아 2:8-10, 14.
5. 휴거되기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죽음을 이기는지 배워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환경 안에 존재하는 죽음의 능력을 어떻게 대항하는지 배워야 하며, 모든 일에서 부활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과 합해졌다는 것을 보여 주고 나타내야 한다 — 고전 6:17, 고후 1:8-9, 5:4, 3:17, 비교 고후 4:5, 10-12.
6. 십자가의 생활은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며 부활의 풍성으로 격려받는다(빌 3:10). 아가의 결론의 말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가 사랑하는 분께 부활 능력(가젤과 젊은 수사슴) 안에서 속히 돌아오셔서 온 땅을 가득 채울(아 8:13-14, 계 11:15, 단 2:35)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향기 그윽한 산들)을 세우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이다.
- F. 우리가 엘리야의 휴거와 성령의 능력을 지닌 영의 두 배의 몫을 받기 원한다면(왕하 2:9-15), 반드시 길갈과 뱀엘과 여리고와 요단강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고(갈 5:24, 빌 3:3), 세상을 버리고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약 4:4, 요일 2:15-17), 사탄을 패배시키고(엡 6:10-20, 계 12:11),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 안에 있는 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롬 6:3-4, 갈 2:20).

IV. 현시대는 이기는 이들의 시대이며, 현시대의 사역자들을 통한 현시대의 사역은 이기는 이들을 부르는 주님의 부름의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기는 이들은 영원의 이상을 보고, 영원의 삶을 살며, 영원의 일을 하는 이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고 새 예루살렘을 살아 내고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건축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출현하는 것을 위해 있다.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는 이들 곧 활력화된 이들이 되기로 결심해야 한다 — 삿 5:15-16, 31, 계 2:7, 11, 17, 26-29, 3:5-6, 12-13, 21-22.